



JARA NEWS

March 2019, No. 133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1 F. Yaesu KT Bldg. 1-1-8,
Yaesu, Chuo-ku, Tokyo JAPAN 103-0028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日本自動車リサイクル部品協議会 BESTリサイクラーズ



주최자를 대표하여 구리하라(栗原) 대표이사가 인사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BEST, 하사 교환회 개최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리협)와 BEST(베스트)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는 23일 도쿄도 내에서 '2019년도 자동차 재활용 부품 단계 하사 교환회'를 개최하였다. 2단체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정부와 자동차 재활용 단체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재활용 업계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리협의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 裕之) 대표이사는 "일손 부족, 슈레더 더스트의 문제, 부품의 물류 비용 상승과 다양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리협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인사하였다. 또한, 일본 ELV 리사이클기구의 합병을 위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확고한 체제에서 시작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 업계의 과제는 공통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도록 ELV와 리협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자동차리사이클실의 후지오카 노부요시(藤岡 伸嘉) 실장은 "중국의 잡품 스크랩의 수입이 중단되어, SR(슈레더 더스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각 방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인사하였다.

ELV기구의 이시가미 츠요시(石上 剛) 부대표 이사는 "ELV기구는 지역의 재활용 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 지부제로 이행한다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변화와 도전을 향해 업계가 나아가 수 있다면 좋은 흐름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31일)

JARA, 리빌트·GP부품 제공 회사 간담회 개최

JARA(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24일, 도쿄도 내의 본사에서 '제7회 리빌트·GP 부품 제공 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리빌트 부품 메이커와 사외 신품 부품 판매 회사인 18사 대표자와 JARA 그룹 임원 등 관계자 38명이 참석하였다. 부품의 판매 확대와 상호 연계의 강화 등 2019년의 대처 등을 논의하였다. JARA그룹 임원과 본부가 2018년에 판매한 리빌트 부품과 사외 신품 부품의 실적은, 목표를 2포인트 웃도는 12% 증가로 순조롭게 추이 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판매 증가를 위해 참석자간에 의식을 높였다.

기타지마 사장은 "JARA 회원도 제휴 리빌트 회사도 증가하고 있어 좋은 관계를 쌓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올해도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 올해의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라고 인사하였다.

회의에서는 2018년의 대응으로 '공장 견학회·기술 연수회'의 개최나 JARA 회원 지구회에서 리빌트 메이커와 사외 신품 부품 판매 회사의 참여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JARA 콜센터에서의 리빌트 부품과 사외 신품 부품의 제안 활동이나, 부품 판매 포털 사이트 'RECO 저팬'에서의 배너 PR 활동의 실적을 보고하였다. JARA 콜센터에서의 2018년의 실적은 매출은 전년 대비 33.5%가 증가, 출하 대수가 동 23.2% 증가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 하였다. 그 외에, 외부 이벤트 출전에 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PR 활동에 대해, 리빌트 메이커와 협력하여 실시한 것을 설명하였다.

2019년은, 리빌트 부품 메이커와 사외 신품 부품 판매 회사가 전개하는 오리지널 캠페인에 대해, 널리 PR 활동 지원을 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6종류의 전단지 제작하여, 부품 이용의 촉진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JARA 회원의 프런트 맨을 대상으로 한, 리빌트 부품의 연수회 개



최를 예정하는 등, 폭넓은 대응을 전개할 생각이다.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연합회(NPO-JARA, 다카하시 사토시(高橋 敏) 이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은, 올해부터 새롭게 우량한 상품을 '우량 리빌트 부품'으로 소개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제조 실적이나 보증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품이 대상으로, NPO-JARA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빌트 사업자의 사업 지원으로 이어간다.

다카하시 이사장은 "자동차의 보유 기간이 장기화되며, 사용자는 가능한 한 리빌트 부품으로 고치고 싶다는 수요가 있다. 여러분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의 리빌트 부품의 브랜드력을 널리 발신해 나가겠다."라는 의욕을 나타냈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7일)

경제산업성, CO2 재활용 기술 확립으로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CO2)의 대기 방출량 삭감과 장래에 있어서의 제로화를 향해 CO2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확립과 보급에 나섰다. 자원에너르기청에 '탄소 리사이클실'을 개설하여, CO2를 분리·회수·이용하는 기술의 개발 촉진과 국제적인 연계를 추진하는 시책을 내놓는다. 올 여름까지는 각 기술에 확립해야 할 시기나 비용을 담은 로드맵(행정표)을 만드는 것 이외에, 이번 가을에는 산관학(産官学) 관계자에 의한 국제 회의의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다.

장래적으로, 화석 연료의 이용에 따른 CO2 배출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서는 CO2를 분리·회수하여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가 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제합리적으로 대기 방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흐름을 '탄소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한다. CO2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자원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다.

탄소 리사이클의 이미지로는, 회수한 CO2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으로 메탄이나 메탄올을 정제하여 연료로 이용한다는 것, 플라스틱의 원료로 한다는 것, 시멘트에 흡착시켜 골재로 만든다는 것, 식물 공장에서의 식물 생산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일부는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 도중이거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도 한다. 자원에너르기청 장관관방에 신설하는 탄소 리사이클실에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등의 담당자를 겸임하는 형태로 34명 배치하였다.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집약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국제 연계의 추진으로 이어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4일)

--- JARA 회원 소개 ---



히가시니혼 자원리사이클은 신일철주금기미쓰제철소 가까이에 위치



시미즈 요시하루 (清水 義晴) 사장



생산 현장에서는 개선 활동이 활발하다 보관 장소에는 자동 창고 시스템을 도입



히가시니혼 자원리사이클

사용 후 자동차(ELV)나 농업 기계의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히가시니혼 자원리사이클(東日本資源リサイクル)(시미즈 요시하루(清水 義晴) 사장, 지바현 훗쓰시(千葉県 富津市)). 재자원화율 95%를 자랑하며, 자동차 리사이클 법에 있어 전부 이용 재자원화 부분에서 'TH 팀'과 'ART' 모두 높은 실적을 자랑한다. '재활용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을'의 문구를 경영 이념으로 삼아, 업계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히가시니혼 자원리사이클은 1998년 창립.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신닛테스미킨) 그룹의 일철주금물류기미쓰(日鉄住金物流君津)(지바현 기미쓰시(千葉県 君津市))의 100% 자회사인 '르네상스'로 기미쓰시에서 탄생하였다. 2004년에 일본 전국에서 철강 사업을 전개하는 요시가와공업(吉川工業)(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北九州市 八幡東区))과 구(旧) 신니혼제철(新日本製鐵, 신일본제철)(현(現)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이 자본 참여하여, 현재의 사명으로 개칭. 이듬해에 본사 공장을 훗쓰시 도미우라(富津市 富浦)로 이전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

요시가와공업은 구(旧) 관영 야하타제철소(八幡製鐵所)의 하청 기업으로 성장을 이룬 경위에서, 신일철주금 그룹과의 관계가 깊다. 1993년부터 자동차 재활용의 연구, 1996년부터 사업화에 착수하여, 1999년에는 니시니혼오토리사이클(西日本オートリ

サイクル)(다카노 히로노리(高野 博範, 기타큐슈시 와카마쓰구(北九州市 若松区))을 신일철주금과 함께 설립하였다. 요시가와공업이 쌓아온 재활용 기술이 동사의 근간이다.

중고품으로 재사용·재활용 시장에 판매하는 것 이외에 소재, 파트 부품은 신일철주금기미쓰제철소(新日鐵住金君津製鐵所)(기미쓰시)에 반입되어, 철프레스, 스크랩은 강재, 철강 제품으로 새로운 차량의 바디로 다시 태어난다. 플라스틱 류는 코크스에서, 발전하기 위한 열원이나 용광로 환원제로 바뀐다. 유리 류에 대해서는 개질 재료로 슬래그화되어, 철강 슬래그 제품으로 노반재·시멘트 재료로서 재이용화한다. 이 기술은 태평양 시멘트, 도쿄세이테츠(東京製鐵), 니시니혼오토리사이클과 더불어, 자동차리사이클 고도화재단의 2018년도 조성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처리 공장 내에 넓이 860평방 미터가 되는 완전 방폭 구역을 마련하는 등, 우수분리층도 갖춘다. 안전면에서는 거품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ELV 입고는 지바(千葉) 지역의 딜러나 전업 공장에서부터가 많다. 물론 그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가격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수에 있어서의 신속함, 서류 수속 관련을 원스톱으로 맡는 등 서비스 면도 소중히 생각하는" (시

미즈 사장)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널리 업계를 둘러 보면, 20128년은 자원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11월에 하락하였다. 운송비의 상승도 겹쳐, 재활용 사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타사와 마찬가지로 '중고 부품 판매 사업'이다. 현재는 약 8천 점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 판매처는 국내를 2·해외를 1로 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동사에서는 "소재와 달리 노력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동)는 생각에서, 생산 현장에서의 동선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 활동에 주력하여, 그 노력이 수익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인재 육성도 수익력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시미즈 사장은 "부품 생산 부분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는 4명 있으며, 재고 회전율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도록 육성해 왔다."라고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 신속히 재고 점수를 1만 점정도까지 늘려, 매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31일)



접수처의 모습



유수분리층을 갖추다

JARA, 프런트 업무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JARA(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5, 6일 이틀간,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의 아이오이닛세이도 와자동차연구소 히가시후지센터(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 東富士センター)에서 '프런트 업무 세미나 입문 코스'를 개최하였다. 재활용 부품의 판매 시에 있어 접객 대응력과 상품 지식의 향상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회원 9사의 프런트와 영업 업무 담당자 9명이 수강하였다. 수강자는, 강의나 롤플레이 등을 통해, 스킬업으로 이어갔다.

연수에서는, 재활용 부품의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에 의한 접객 대응의 마음가짐이나 CS(고객 만족) 향상, 전화 대응 등의 강의 수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지식의 재확인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

롤플레이는, 부품 유통 시스템 'ATRS(아틀라스) 시스템'과 'SPL(슈퍼 라인) 시스템'을 사용한 재활용 부품의 문의나 주문 시의 대응, 부품의 지식 등의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차체 정비 사업자가 판금 도장(BP)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실천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수강자 전원의 롤플레이를 통해 수강자 각각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도 이어졌다.

JARA에서는, 이와 비슷한 연수를 앞으로도 개최할 생각으로, 회원의 사업 지원으로 이어가려고 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14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9년1월

5,981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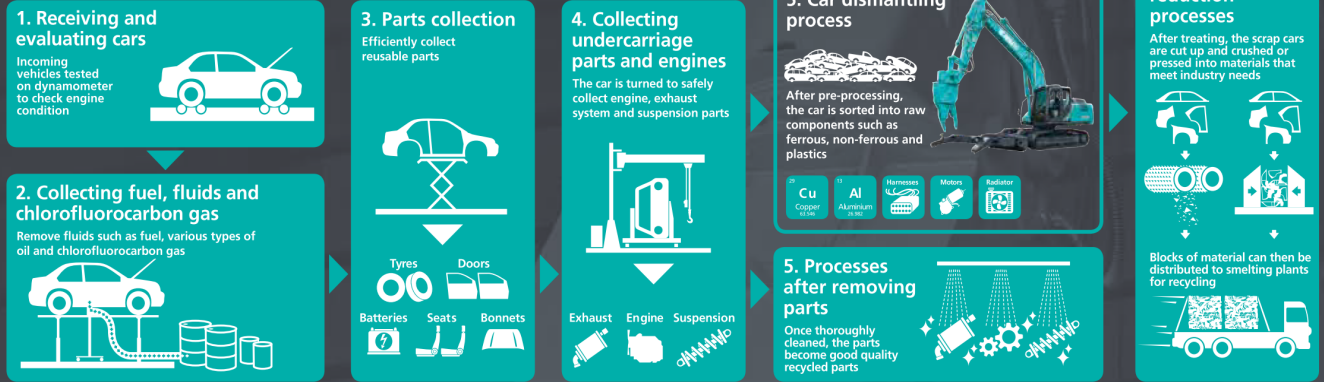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s)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Fe Iron, Al Aluminum, Cu Copper, Pt Platinum, Pd Palladium

Separation of these valuable materials is quicker and easier and can be performed with one Kobelco machine.

Engine, Catalytic Agents, Body Steel, Seats, Windows, Wheels/Tyres, Suspension, Radiator, Brakes, Front & Rear Bumpers, Transmission, Doors, Harnesses

The machine's special attachment is designed to strip materials from End-of-Life Vehicles (ELV) safely and thoroughly

SK210D



SK210D



SK 135SR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